

#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 즉각 철회하라”

### 외교부 “미래 한일 관계 해쳐” 주한 총괄공사 조치 강력 항의 “한국이 불법 점거” 표현 유지

정부는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조치해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법제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조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도 지난해와 같다.

한편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하면서도 당시 자국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 대통령실 “野 외교 자해행위”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물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내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외신 보도를 고리로 이틀째 대외 공세를 이어 갔다.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 태도를 문제 삼는 동시에 도·감청을 당한 배경으로 ‘대통령실 졸속 이전’ 주장을 재차 꺼내 들며 여론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민에 사과하는 게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 등의 정치적 공세로 (야당을) 겁박하기에 비뚤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립 노동개혁 특위 발족... “대한민국 도약 위한 시대적 과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 산하에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처음 추진하는 특위로,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제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활성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 노조 세력이 제 밭그릇 쟁기에 일관하면서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기아 전기차

윤 대통령 기아 전기차 기공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뒤 정익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 ‘50억 클럽’ 확산도 재수사...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첫 압수 확산도 아들 뇌물수수 공범으로

검찰이 11일 광산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의 50억 뇌물 수수 및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경쟁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압박한 추가 정황을 파악해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그에 앞선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손을 잡은 호반건설이 성남의뜰에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에 자신들과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상열 호반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찾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한 호반 자금을 다 빼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민간업자 남욱씨 등 진술이다.

이 과정에서 판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외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게 1차 수사팀의 결론이었다.

판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 항소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병채씨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판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50억원 뇌물 수수의 공범이라는 게 검찰 판

단이다. 병채씨는 대장동 의혹 초반 이미 뇌물 혐의 공범으로 고발돼 피의자 조사도 받았으나 1차 수사 당시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에 범죄수의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실상은 뇌물인데 퇴직금 등 명목으로 가장했다는 취지다.

판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하면서 내가 어딜 찾아갔다거나 무슨 말이라도 했다는 걸 입증했느냐”고 반문하며 “아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도 김만배 등이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반발했다.

또 아들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부분도 “검찰이 재판에선 내 아들이 뇌물 공범은 아니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뒤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들을 불러 하나은행 회유 경위와 결과적으로 따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판 전 의원 부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